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2021. 9. 15.(수) 14:00	배포일시	2021. 9. 15.(수) 09:00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 장 이정은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이소진 (044-203-2749)

〈거북이와 두루미〉, 문자와 생명의 관계를 68개 작품으로 표현

- 9. 14.~10. 17. 문화역서울284,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과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거북이와 두루미>'가 9월 14일(화)부터 10월 17일(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다.

전 세계 50여 개 팀, 글자에 국한하지 않고 시각예술 전 분야를 아우른 작품 전시

올해로 7회를 맞이한 타이포잔치에서는 '문자와 생명'을 주제로 다룬다. 전시 제목 <거북이와 두루미>는 1970년대 한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으로 시작하는 인간의 장수를 바라는 문자 80개로 구성된 이름의 일부를 활용해 생명과 문자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전시는 ▲ 기원과 기복, ▲ 기록과 선언, ▲ 계시와 상상 ▲ 존재와 지속 등, 총 네 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세계 각국 50여 개 팀은 문자의 영역을 글자에 국한하지 않고 기호,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그림과 같은 시각언어로 넓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뿐만 아니라 삽화(일러스트레이션), 현대미술, 공예, 사진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아울러 작품 총 68개를 제작했다.

전시의 총괄을 맡은 이재민 예술감독은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다른 생명을 존중하려는 태도에도 주목했다.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는 사회 흐름처럼 타이포잔치 역시 경계의 틀을 허물고 다채로운 해석을 추가하고자 했다.” 라고 전시기획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 토크(9. 25.~10. 9.)’ 등 비대면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

올해 타이포잔치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비대면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토크’가 9월 25일(토)부터 10월 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글날(10. 9.) 특집에서는 네이버문화재단과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라피연구소 등이 ‘타이포잔치 2021’의 공식 서체인 네이버 ‘마루부리’ 글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10월 9일(토)부터 공식 배포

전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타이포잔치 누리집(www.typojanchi.org/)과 공식 누리소통망(instagram@typojanchi)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전시 그래픽 디자인

2. ‘타이포잔치 2021: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거북이와 두루미>’ 개요

담당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이정은 과 장 (044-203-2751)
		담당자	이소진 사무관 (044-203-2749)
주관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정책팀	책임자	김지원 팀 장 (02-398-796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전시 그래픽 디자인

붙임 2 타이포잔치 2021 :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거북이와 두루미》 개요

□ **개요**

❍ **(전시명)** 타이포잔치 2021 :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거북이와 두루미》

❍ **(기간)** 2021. 9. 14.(화)~ 10. 17.(일) 34일간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협력)** 국립한글박물관,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 **(후원)** NAVER, NAVER문화재단, 안그라픽스, TWL, motemote,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협찬)** AG타이포그라피연구소, CAVA Life, 프린트 피델리티

❍ **(공인)** ico-d (국제디자인협의회)

❍ **(미디어후원)** 월간디자인, 디자인프레스, IDEA(일본), Design360°(중국)

❍ **(내용)** 그래픽 디자인과 글자 디자인을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현대미술, 공예, 사진 등을 아우르는 시각예술 전반

❍ **(전시장소)** 문화역서울 284 전관

❍ **(전시규모)**

– 참여작가: 51팀 [엘모(프랑스), 스튜디오 스파스(네덜란드), 황나키(런던), 고바야시 이키(일본), 티놉 왕실라파쿤(태국), 시모 체(암스테르담), 안드레아스 사무엘손(스웨덴), 엔히 캄페앙(브라질), 국동완, 뚜까따, 람한, 오선주, 오유경, 이미주, 장한나, 최하늘, 파일드, 그레이트마이너 등]

❍ **(연계프로그램) 총 3회 진행**

– 온라인 투어 & 아티스트토크 with 두성종이(각 2회), 네이버문화재단×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의 한글날 특집 토크(1회)

□ **주요 세부 구성** ※세부내용 별도 첨부

○ **(웹사이트)타이포잔치 2021 : www.typojanch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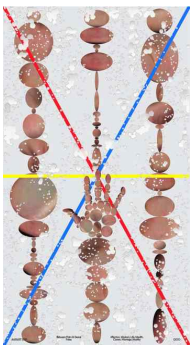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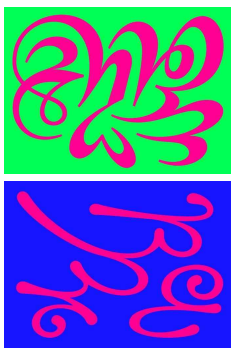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typojanchi

○ (전시구성)

구분	파트명	내용
파트 1	「기원과 기복」 생성과 호기심	1. 기도들(11팀): 인간의 원초적인 바람을 각국의 문자와 다양한 메타포의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 2. 홈스위트홈(1팀): 집 안에 두는 행운의 물건에서 영감 받은 설치 작품 3. 참 좋은 아침(10팀): 인터넷 대화창에서 주고받는 덕담 메시지에서 영감받은,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
파트 2	「기록과 선언」 열정과 직관	1. 말하는 그림(7팀): 디자인과 문자, 사회를 연관 지어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들을 이미지와 글로 표현 2. 흔적들(1팀):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재의 모습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환경의 문제에 생각해 볼 기회 제공 3. 생명도서관(48권):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던 북디자인 사례를 수집
파트 3	「계시와 상상」 응축과 지략	1. 밈의 정원(5팀): '밈'의 정치학으로 부터 파생된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시각 예술 2. 기호들(5팀): 공예적 기법을 통해 표현하는 다양한 상징과 기호들
파트 4	「존재와 지속」 조화와 균형	전시장 곳곳에 전시되어 각 파트를 연결하며, 전시의 주제인 문자와 생명을 가장 심도 있게 표현하고 있는 타이포잔치 2021의 주요 작품들 (11팀)

① (파트1) 기원과 기복

- (내용) 생성과 호기심을 테마로 하는 파트. 원초적 바람과 기원에 대한 해석을 담은 작품을 전시
- (참여작가) 총 22팀
  아틀리에 뚜 바 비앙(Atelier Tout va Bien, 프랑스), 고바야시 이키(小林一毅, 일본), 류자오 (劉釗, 중국), 티놉 왕실라파쿤(Tnop Wangsillapakun, 태국), 이화영, 윤예지, 텍스처온텍스처 등

		
(파트1) ⓒ이화영, 〈나무 아래 쥐부터 구름 아래 돼지까지〉, 120×220cm, 디지털프린팅, 2021	**(파트1)** ⓒ오닷오오, 〈손바닥과 바람 사이〉, 120×220cm, 디지털프린팅, 2021	**(파트1)** ⓒ김현진, 〈글자굿〉 연작, 1440×1080px, 스틸이미지, 2021

② (파트2) 기록과 선언

- (내용) 분열과 결실, 열정과 직관을 테마로 하는 파트. 동시대의 화두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을 전시
- (참여작가) 총 7팀, 48권의 도서
  게이브리얼 알카라(Gabriel Alcala, 미국), 안드레아스 사무엘손(Andreas Samuelsson, 스웨덴), 니시야마 히로키 (Hiroki Nishiyama, 일본), 펜유니온, 장한나, 윤예지 등

<table>
<tr><td> </td><td> </td></tr>
<tr><td>(파트2) '생명도서관' 설치 예상도</td><td>(세션2) ©장한나, 〈뉴모픽락 2020〉, 33.4cm×45.5cm, 나무패널과 수집된 플라스틱, 2020</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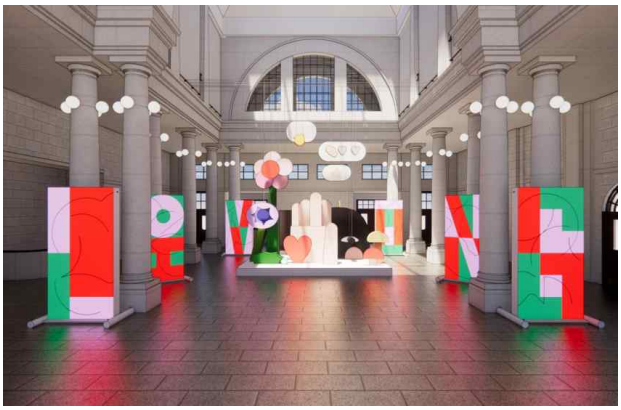
③ (파트3) 계시와 상상

- (내용) 응축과 지략을 테마로 하는 파트. 미디어적 상징과 미래적 상상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작품 전시
- (참여작가) 총 14팀
  람한, 최하늘, 오선주, 오유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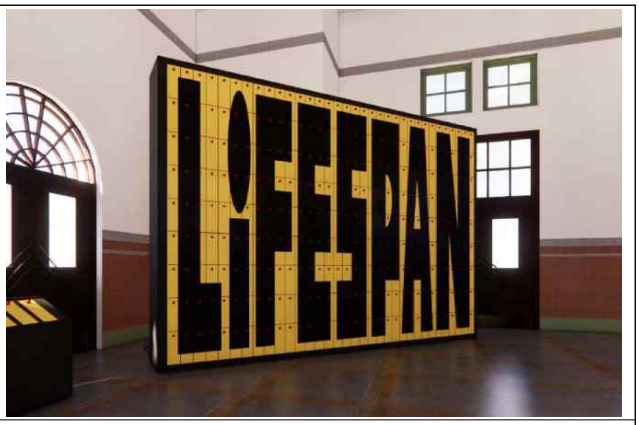
<table>
<tr><td> </td><td> </td></tr>
<tr><td>(파트3) ⓒ강재원, 〈스우시〉, 796x185x500cm, 인플레이터블, 2021</td><td>(파트3) ⓒ최하늘, 〈네가 여기 있었다고 말해줄게〉, 1500×430, 에코보드에 은경, 시트지</td></tr>
</table>

④ (파트4) 존재와 지속

- (내용) 조화와 균형을 테마로 하는 파트.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항상성을 보여준 작가들이 문자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장 심도 있게 표현한 타이포잔치 2021의 주요 작품들을 전시
- (참여작가) 총 11팀
  엘모(helmo, 프랑스), 스튜디오 스파스(Studio Spass, 네덜란드), 국동완, 이미주, 황나키 등



(파트4) 이미주, 〈여래신장〉
엘모, 〈삶/사랑〉 설치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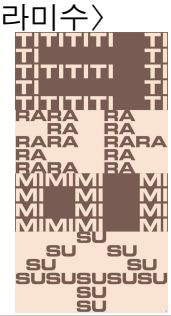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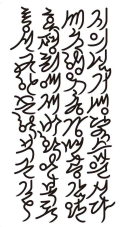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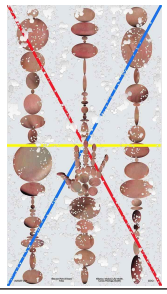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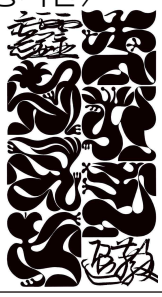
(파트4) 스튜디오 스파스, 〈수명〉 설치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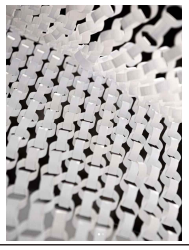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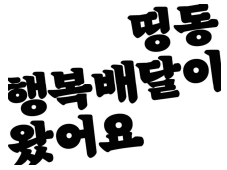
○ (연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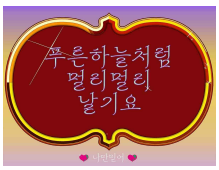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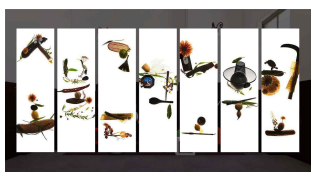
연번	날짜	행사개요	내용
1	2021.9.25. 오후 2시	1부 : 온라인 투어 1 (30분) - 참여자 : 국립현대미술관 이현주 학예사, 타이포잔치 2021 기획팀 2부 : 아티스트 토크 with 두성종이 1 (40분) - 참여자 : Studio SPASS & 황나경 작가	- 전시 기획의도 및 작품 소개 - 작가별 작품내용, 준비과정을 영상 제작
2	2021.10.2. 오후 2시	1부 : 온라인 투어 2 (30분) - 참여자 : 국립현대미술관 이현주 학예사, 타이포잔치 2021 기획팀 2부 : 아티스트 토크 with 두성종이 2 (40분) - 참여자 : 맙소사, 참여작가	- 작가 기획의도 및 작품 소개 - 전시 참여 아티스트 인터뷰, 작업공간 및 과정 소개
3	2021.10.9. 오후 2시	네이버문화재단×AG타이포그라피연구소 네이버 마루부리 서체 특집 토크 (100분) - 참여자 : 서체개발자 및 테스트버전 유저, (유투버 및 블로거 등)	- 서체 관계자와 함께 제작의도, 특징 소개 - 사용자에게 듣는 마루부리 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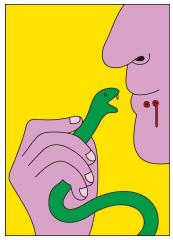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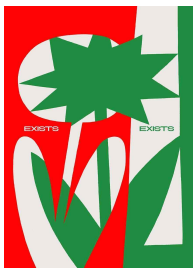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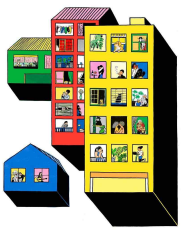
□ 참여 작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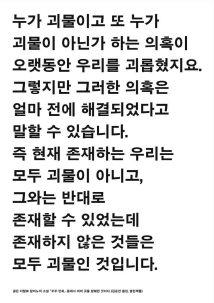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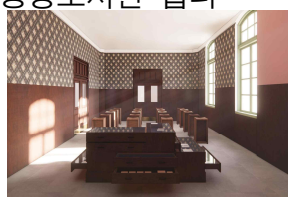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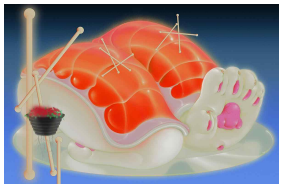
파트1 「기원과 기복」				
	권도희	태국 북부의 치앙다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주로 앨범 커버와 공연 포스터들을 작업해 왔다. 작품 속에 내면의 치유와 더 높은 자아를 찾는 여정을 담으려 노력한다.	치앙다오	〈333〉
	류 자오	2014년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Another Design을 공동 설립한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뉴욕 TDC, 도쿄 TDC, D&AD 등의 다양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였으며 국제 그래픽 연맹(AGI)의 회원이자 SGDA 부회장을 맡고 있다.	광저우	〈06〉
	스튜디오 베르기니	프란체스코 코르시니와 크리스티안 호르스 베르지가 설립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2015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를 졸업한 이후 예술가, 기업, 문화기관 등의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아이덴티티, 전시 디자인, 웹사이트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런던	〈티라미수〉 
	앤서니 람	홍콩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앤서니 램은 브랜딩, 일러스트레이션, 북디자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재 홍콩대학교 건축학과를 위한 전시, 강연, 출판 등의 아트디렉션과 큐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	〈운명의 미궁〉
	아틀리에 투 바 비앙	안나 체반스와 마티아스 레이누아르드가 설립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구조적 기능성, 조형의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정확성, 시각적 내레이션 등의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언어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디종	〈죠세프에 대한 헌사〉
	안마노	홍익대학교와 스위스 바젤디자인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이미지 사이 간극을	서울	〈글자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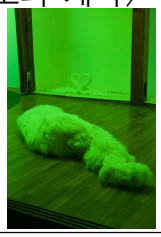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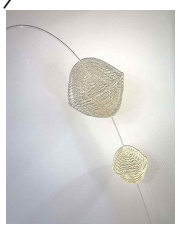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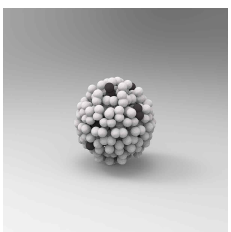
		주제로 실험적 표현을 탐구한다. 현재 안그라픽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며 서울시립대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 출강중이다.		
	오닷오오 (0.OO)	주로 리소그래프 인쇄를 사용하여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여온 타이베이의 디자인 스튜디오. 이들의 작품은 뉴욕과 도쿄 TDC에 선정되었으며, 〈불완전한 소책자〉는 ⟪It's Nice That⟫이 선정한 2016년 그래픽 디자인 TOP 25로 소개된 바 있다.	타이베이	〈손바닥과 바람 사이〉 
	이화영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했으며 환상, 기억, 소녀, 동양 철학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16년에 설립한 보이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기관을 위한 프로젝트, 크고 작은 규모의 브랜딩, 제품 디자인 등 폭넓은 분야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나무 아래 쥐부터 구름 아래 돼지까지〉
	코바야시 이키	시가현 히코네 시에서 태어났다. 타마미술대학 그래픽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뒤 시세이도에서 디자이너로 재직했다. 독립한 이후 2016년 도쿄 TDC상, 2019년 JAGDA 뉴디자이너상, 일본 패키지 디자인상 은상을 수상했다.	도쿄	〈악령퇴산〉 
	티놉 왕실라파쿤	예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디자인 스튜디오 티놉 디자인의 설립자이자 디렉터. 작품의 개념과 장인정신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랭싯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전임 교수이며, 2016년부터 국제 그래픽 연명(AGI)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방콕	〈죽은 대부의 성지〉
	그레이트 마이너	정도이와 정재나로 구성된 팀으로 형태와 구조의 탐구를 바탕으로 한 공예 기반의 작업을 진행한다. 작은 사물부터 오브제, 설치 작업까지 다양한 범주 안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	〈원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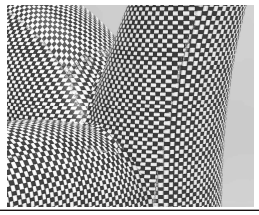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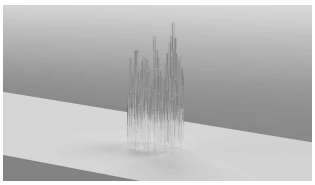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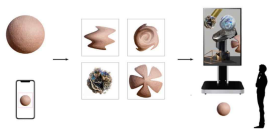
				
	스튜디오 씨오엠	공간디자인을 전공한 김세중과 무대미술을 전공한 한주원이 2015년 결성한 디자인 스튜디오. 상업공간부터 오피스까지 다양한 성격의 공간과 가구를 디자인 한다. 대표적 작업으로 HYBE 사옥과 인왕산 대충유원지, JTBC PLAY 등이 있다.	서울	〈행운의 집〉
	구모아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에 책임연구원 및 팀장으로 〈마루 프로젝트〉와 같은 글꼴 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새로운 글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디자인학교와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에서 글꼴 디자인을 가르친다.	서울	〈부모님께〉
	김영선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브랜드 디자이너로 인쇄 매체 디자인, 브랜딩, 레터링,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 주로 흥미로운 형태의 글자를 도구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접목해 작업한다.	서울	〈지혜의 메세지〉
	김주경	2017년에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그해 8월부터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에서 글꼴을 디자인했다. 궁체를 재해석한 〈화양연화체〉와 옛한글을 지원하는 〈AG 훈민정음체〉를 개발하였고, 현재는 〈초특태명조〉를 그리고 있다.	서울	〈내일의 운세〉 
	김현진	글꼴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낯설지만 아름다운 조형의 글자 탐험을 즐기며, 새로운 인상의 한글꼴을 찾고자 한다. 한글꼴 지도에 비어 있는 좌표들을 찾아 채워 넣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글꼴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작업을 병행한다.	서울	〈글자굿〉
	박진현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글자를 다루고, 활자 디자이너로서 글자를 그리며, 종종 글자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	서울	〈상충 相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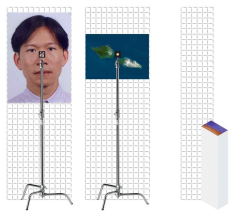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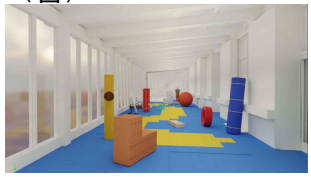
		2018년에 세로쓰기 전용 글자체인 〈갈맷빛〉을 출시했고, 현재는 본문용 민부리 활자 가족 〈지백〉을 그리고 있다.		
	임혜은	대학에서 금속공예와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했고 몸에 익힌 공예적 작업 방식을 일러스트레이션, 영상, 폰트 디자인 영역에 적용해왔다. 2018년에 폰트 〈Mapo다카포〉를 만들었다. 현재는 폰트 회사인 산돌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서울	〈꽃과 심장〉 
	양장점	라틴 알파벳 디자이너 '양'희재와 한글 디자이너 '장'수영이 만든 서체를 판매하는 상'점'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의 타입 디자인 스튜디오. 양희재는 양장점에서 라틴 알파벳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장수영은 양장점에서 한글 서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	〈웃으면 복이 와요〉 Smile Brings Fortune 웃으면 복이 와요
	하형원	가독성이 담보된 새로운 한글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에 관심이 많으며 M/V, 애니메이션, 광고를 위한 타이틀 레터링을 만든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는 전시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을 진행하며, 최근에는 BATON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서울	〈무사태평〉
	레몬	과거엔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수집가다. 특히 1970~80년대 레트로 가젯에 애정이 깊다. 턴테이블, 붐 박스, 카세트테이프 등 음향기기뿐 아니라 전자제품, 피겨, 로봇까지, 독특한 제품들을 비슷한 취향을 가진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공간 '레몬 서울'을 열었다.	서울	〈가화'밈'사성〉
	텍스처온 텍스처	2015년부터 서울을 기반으로 사진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다. COS, Aesop, JTBC, HYBE 등 다양한 규모의 브랜드, 작가, 디자이너와 함께 여러 매체를 통해 협업했다. 《변화구성》, 《올림픽 이펙트: 한국 건축과 디자인 8090》 등의 단독 전시 및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서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파트2 「기록과 선언」				
	게이브리얼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마이애미	〈내부의 우주〉

	알칼라	고등학교 졸업 후 시작한 밴드 활동을 통해 많은 투어 경험했다.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에 몰두한 이후로는 애플, 뉴욕 타임스, 나이키, 워싱턴 포스트 등과 협업했다. 한가할 때에는 강아지 시모어랑 뛰는 것, 명상하며 쉬는 것을 즐긴다.		
	니시야마 히로키	단행본, 잡지, 광고, 웹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타마 미술대학 그래픽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일본 HB GALLERY FILE COMPETITION에서 Takayuki Soeda Prize, 2017년 뉴욕 ONESHOW에서 Merit를 수상했으며, 도쿄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	〈존재들〉 
	안드레아스 사무엘손	예테보리에 거주하는 이미지 크리에이터. 불필요한 것을 모두 뺀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통해 선, 재질, 형태의 여러 특성을 탐색하고, 도전하고, 대조함으로써 복잡한 단순함을 만들어낸다.	예테보리	〈사람의 몸〉
	엔히 캄페앙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애플, 코카콜라, 뉴욕타임스, 쿼츠, 스냅챗 등의 클라이언트와 작업했다. 그의 영감은 자연, 퀴어 공동체, 브라질에서의 삶 등에서 비롯된다. 퀴어 공동체를 옹호하고 다양한 종류의 인물과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상파울루	〈개화〉
	윤예지	출판, 포스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 MBC 『라디오 스타』 로고, NIKE 팝업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카라 동물영화제 포스터 등을 작업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과 감정의 흐름을 이미지로 기록해두려 노력하며, 그림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탐구 중이다.	서울	〈위로받고 싶은 시대의 단상〉 
	오카와라 겐타로	일본의 화가이자 조각가. 2011년 도쿄폴리텍대학 예술과를 졸업한 이후 다양한 국제 전시를 했으며 5권의 미술 서적을 출간했다. 작품을 통해	도쿄	〈무제(7월부터 8월까지)〉

		‘예술은 사랑의 표현이며 서로 연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그의 오랜 믿음을 탐구한다.		
	펜 유니온	김하나는 제일기획, TBWA KOREA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말하기를 말하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공저)」, 「힘 빼기의 기술」 등을 썼고 팟캐스트 『책읽아웃-김하나의 측면돌파』를 여러 해 진행했다. 황선우는 잡지를 만들고 인터뷰하는 일을 20년 했고, 그중 『W Korea』에서 가장 오래 일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공저)」, 인터뷰집 「멋있으면 다 언니」를 펴냈고 김하나와 함께 유튜브 채널 『펜유니온 TV』를 운영하고있다.	서울	〈먼 곳에 기둥 박기〉 
	장한나	삶 속에서 만나는 환경문제를 관찰하며 작업을 이어간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경고하거나 고발의 주제로 보지 않고 미적 연구 또는 관찰 대상으로 설정한다. 암석화된 플라스틱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뉴락New Rock〉(2017~)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뉴 락 표본 2017-2021〉
	48권의 도서들	2015년 이후 출간된 국내 도서 중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담겼던 48권을 선별, 전시	서울	생명도서관 챕터 
파트3 「계시와 상상」				
	강재원	미래의 조각에 관심이 있다. 3D 프로그램 내부의 기능들이, 현실의 조각을 구성하는 원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디지털 조각 방식에 의해 조형되는 감각’에 관심을 두며 작업한다.	서울	〈스우시〉
	람한	SNS를 통해 열화되고 복제되는 무작위의 이미지를 끊김 없이 공급받으며 그것들 사이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시각적 질감과 색채, 요소들을 재료로 사용한다. 그려내는 작업이 현실과 가상의 차원을 무시한 동시대의 익숙한 풍경화로 보이길 바라고 있다.	서울	〈babo_F〉 외 

	문탄샵	이미지-무빙 이미지에 기반을 두며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배소영, 송다슬, 이은솔이 2020년 말에 결성한 프로젝트 팀. 창작 과정의 유희와 도처에 널린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과 매혹의 언어를 포착하여 각자의 언어로 구조화한다.	서울	〈에코의 계곡〉 
	추수	홍익대학교에서 판화와 예술학을 전공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예술대학에서 현대예술을 공부했다. 디지털 시대의 노동조건과 신체의 퀴어성, 젠더와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버츄얼 활동가라는 실험적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다.	서울	〈슈뢰딩거의 베이비〉
	최하늘	조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와, 동시에 조각의 고유한 영역 사이에서 고민한다. 아라리오뮤지엄(2021, 서울), P21(2020, 서울), Commonwealth & council gallery(2018, LA) 등 총 5번의 개인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곳에서의 단체전을 가졌다.	서울	〈그림을 보고 있는 조각〉 외
	김동해	금속공예 작업을 통해 자연과 일상에서 관찰하고 느낀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생활공간에 놓이는 장식과 물건을 만든다. 사물과 주변 공간과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며 일상의 공간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한다.	서울	〈01〉
	민덕기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을 졸업했다.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과 맞닿은 사물을 제작한다. 한 가지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열렸을 때 발산되는 기운을 찾아다니며, 재료를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배움을 소중히 여긴다.	서울	〈00〉 
	오선주	서울대학교 도예 전공을 졸업하고 백자와 석기 작업의 중간지점에서 흙이라는 재료가 가진 매력을 정제된 형태로 담는 작업을 한다. 물레 성형의 과정을 즐기고 그 안에서 형태와 색, 질감을 찾아가면서 식기와 오브제 등 다양한 작업을 해나가는 중이다.	서울	〈00〉 
	오유경	삼성디자인교육원(SADI)에서 패션 디자인학을 공부했고 직접 론칭한 브랜드 스튜디오오유경을 운영하고	서울	〈10〉

		있다. 네 번의 서울컬렉션,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조준익	디자인 스튜디오 Craft Combine의 멤버로 소재가 가진 다양한 특성에 주목하여 동시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제품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글라스 오브젝트 브랜드 clear b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11〉 
파트4 「존재와 지속」				
	고경빈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시각 미디어디자인을, 샌드버그 인스티튜트에서 Master of Voice를 공부했다. 디지털 노동 시스템에서의 여성의 몸과 목소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전유되는지를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해 접근한다.	암스테르담	〈시스템 오류의 그림자〉
	국동완	드로잉, 페인팅, 조각, 책 작업을 통해 무의식과 무의식에 접근하는 과정을 다룬다. '자유 연상'을 활용하여 드로잉을 수백 배 확대하는 회화 시리즈를 전개한다. 꿈을 다루면서 단련된 시선을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사회 현상으로 옮기며 개인과 사회의 조형적 접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집에 머물러 주세요 900×〉 외
	기업의 유령들	기업에 소속된 디자이너는 다양한 프로젝트로부터 비롯된 만남, 채택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여러 기록을 숨기고 있다. 여러 복잡한 조건들 속에서 미처 시도할 수 없었거나 버려진 아이디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디자인콜렉티브 그룹이다.	서울	〈소원을 말해봐〉 
	뚜까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TUKATA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렉터인 이효진과 정하영은 일상의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TUKATA가 추구하는 Long-lifestyle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과 행복한 미래를	서울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스튜디오 스파스	2008년 Jaron Korvinus와 Daan Mens가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다양한 브랜딩, 웹 및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엄격하고 사려 깊으며 지적인 접근 방식과 재미있는(spass는 '재미있다' 라는 뜻이다.) 감성을 결합한다.	로테르담	〈수명〉
	시모 체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이자 독립적 연구자. 창작 행위를 통해 우리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친밀함과 소외감 사이의 지점을 탐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2020년 샌드버그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후 현재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이다.	암스테르담	〈태양도 별이다〉 
	엘모	2003년 토마스 쿠데르크와 클레망 보체스가 설립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주로 프랑스의 문화기관이나 페스티벌과 협업한다. 포스터, 북디자인, 전시 디자인, 사이니지 디자인 등의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자율적이고 독특한 표현의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몽트뢰유	〈삶/사랑〉
	이미주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바르셀로나 예술대학교 EINA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스페인에서 활동하다 2016년 귀국하여 고향인 부산을 기반으로 일상적 순간들을 수집, 조형적 이미지로 재생산하고 배열하는 공간 페인팅 작업을 진행한다.	부산	〈여래신장〉
	클럽 썽	비주얼과 공간을 다루는 디자이너 김슬, 공간과 오브제를 다루는 디자이너 Lucas Ramond은 2019년부터 club sans 클럽썽, 열린 형태의 디자인 콜렉티브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감각과 공간을 통하는 그들의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서울, 랭스	〈짐〉 

		경험으로 남는 메시지를 제안한다.		
	파일드	사진 및 그래픽 디자인을 중심으로 다른 분야와의 조합을 통해 이미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을 이어온 프로젝트 그룹. 두 권의 사진집을 발간했으며 전시 《PLAANTS》(2021), 《Filed SS 2020》(2019) 등을 기획했다.	서울	〈잃어버린 이미지〉
	황나키	실체와 물성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런던으로 건너가 시각언어에 관한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몰입감을 제공하여 정신적, 초월적, 명상적인 주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작업 스타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인 VR에 집중하여 작업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런던	〈우리의 탄생지〉 외